

빈곤 모자가정의 삶의 질 측정과 사회사업적 개입에 관한 연구

황 성 철, 최 선 화*

- I. 서론
- II. 문헌 및 선행연구의 고찰
- III. 연구 설계 및 방법
- IV. 연구결과
- V. 복지대책 및 사회사업실천에의 함의
- VI. 빈곤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사업적 개입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사회는 지난 20-30여년 동안 성공적인 산업화와 공업화의 결과로 국가경제는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일반국민들의 소득수준도 상당한 정도로 신장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번영의 그늘에 가려서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대 빈곤계층은 물론이거니와 상대적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영세한 계층의 주민들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사회계층 또는 집단 중에서 특히 모자가정은 정부가 절대빈곤계층으로 규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서 대부분을 차지하고,¹⁾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취약한 가정으로 분류되어 사회복지적 차원의 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 또한 모자가정은 여성의 빈곤화 현상(feminization of poverty)이라는 일반적인

*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중 모자가정은 거택보호대상자 가구의 64%, 자활보호대상자 가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단기정책연구 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p.196 참조.

빈곤 모자가정의 삶의 질 측정과 사회사업적 개입에 관한 연구

경향의 가장 대표적인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를 위시하여 여성복지의 제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자가정은 일반적으로 여성 가구주가 가족의 생계를 떠맡아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가정에서 야기되는 심리적 또는 사회적 문제 및 자녀양육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복잡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밖에도 남편의 부재로 인한 복합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역할가중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은 그들의 당면한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후 교정적인 측면 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녀들에 의한 빈곤의 세대이전을 단절시키고 자녀들의 건전한 아동발달과 양육이라는 예방적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문제나 비행 등의 통계에서 보면 빈곤가정 특히 편부모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비행감염 및 발생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²⁾은 모자가정에 대한 예방적 또는 교정적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 주고 있다.

빈곤모자가정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복지대책과 사회사업적 개입은 그들이 안고 있는 복잡다양한 문제의 양상과 정도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빈곤모자가정에 관한 조사연구는 미흡한 수준에 있으므로 효과적인 복지대책의 마련과 사회사업적 서비스 제공에 충분한 이론적 그리고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열악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처해 있는 빈곤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질과 사회복지 욕구를 가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복지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사업적 개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988년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도시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는 오늘날 새로운 빈곤층 밀집지역으로 등장하여 각종 사회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삶의 질의 세계화가 선언된 오늘날 여성복지의 제일차적인 관심이 저소득 빈곤계층의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모자가정의 여성복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정책적 과제로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형성된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모자가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과 복지욕구를 조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자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지역 빈곤모자가정에 초점을 두어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적 욕구는 무엇이며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들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2) 이윤호, 한국청소년비행론, 법문사, 1991, p.32. 전광희, “가족제도의 변동과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그 대책, 제8회 형사정책세미나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pp.69-11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1993, p.112.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밝혀보고 그들에 대한 사회사업적 개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및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해진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및 그 결과가 제시하는 함의는 모자가정 특히 빈곤모자가정을 위한 여성복지대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할 기초자료로써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둘째, 삶의 질에 관한 논의는 부분하지만 실제로 이를 구성하는 내용에 관한 일반적인 합의가 없는 가운데 여성을 가구주로 하는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질적 조사연구는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서 접근하므로 생생한 현장감이 있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가 제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그들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사업적 개입방안이 모색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부산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빈곤모자가정의 여성의 삶의 질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탐색해보고 그에 따른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적합한 사회사업적 개입방안을 모색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2. 연구 대상에 대한 정의

모자가정은 흔히 여성이 가구주인 가정과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모자가정과 여성가구주 가정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사점을 가지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모자가정과 여성가구주 가정의 개념들을 명확히 한 후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을 규정하도록 하겠다.

먼저 여성가구주 가정은 다음의 세가지 유형을 모두 지칭한다. 첫째, 여성 스스로 혹은 가구원중에서 여성이 가구주로 되어 있는 가정과 둘째, 가족의 결속과 상호작용을 통제하는 즉 가족내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 그리고 셋째, 가구의 '주소득원'이 여성으로 규정된 가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가구주 가정은 주민등록부상에 여성이 세대주로 기재된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기 때문에 첫번째 유형에 해당된다.

모자가정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유기, 별거에 의하여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존재해도 사실상 부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과로 나타나는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편모와 소수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빈곤 모자가정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적부조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모자가족이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생활보호자 중 거택 및 자활보호자와 보훈대상자,

빈곤 모자가정의 삶의 질 측정과 사회사업적 개입에 관한 연구

일본군 위안부, 기타 저소득 모자가정, 철거 세입자, 청약저축 가입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대상자인 영구임대주택의 빈곤모자가정은 다음의 세가지 유형에 속하는 가족이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인 요보호 모자가족

둘째, 생활보호대상은 아니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은 편모가족으로 편모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셋째,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서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모자가족이다.

II. 문헌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모자가정 문제의 양상과 사회사업적 개입

1991년 미국에서 편부모 가정은 전체 가정의 25%를 차지하고 인종집단별 편부모 가정을 세분하면 백인 가정의 23%, 남미계 가정의 33%, 흑인가정의 61%가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데 편부모 가정에서 여성이 가구주인 모자가정은 전체 편부모 가정 가운데 88%를 차지하고 있다.³⁾ 미국에서 모자가정은 다른 여타의 집단 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한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모자가정의 빈곤율은 백인보다는 유색인종 모자가정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백인모자가정의 39%, 흑인모자가정의 60% 그리고 남미계 모자가정의 61%가 빈곤가정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비록 모자가정의 가구주인 여성이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모자가정은 빈곤계층으로 분류된다. 즉 전일제 직장을 갖는 백인 여성이 가구주인 모자가정의 56%와 흑인 또는 남미계 여성이 가구주인 모자가정의 64%가 공식적인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⁵⁾ 이와 같이 미국에서 모자가정의 빈곤화 현상은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고 있는데 한 조

3) Kissmanm, K. "Faminist-based Social Work with Single-Parent Families," Families in Society, Vol. 72, No. 1, 1991, pp.23-28. U. S. Bureau of the Census,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92, 112th ed.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4) U.S. Bureau of the Census, "Estimates of the Population of the U.S. by Age, Sex, and Race 1983-2090", Current Population Report, Series p.23, No. 163.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9.

5) Spalter-Roth, R., Hartman, H., & Andrews, L. "Making Work Pay: The Unfinished Agendas," In W. J. Wilson, ed., Sociology and the Public Agenda,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1993, pp.316-338.

사 연구에 의하면 모자가정은 양친가정에 비해서 5배의 높은 빈곤율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⁶⁾ 모자가정이 빈곤계층으로 전락되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⁷⁾ 첫째,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저임금화 현상으로 인하여 모자가정의 여성이 취업을 해도 충분한 소득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 둘째, 부의 부재로 인해 아동양육의 부담으로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을 해도 한정된 수입으로 양육비의 부담이 크다. 셋째, 정부가 모자가정에 대한 적절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빈곤 모자가정에 대하여 미국에서 전개되는 사회사업적 서비스의 최근 경향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진다.⁸⁾ 하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며 다른 하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 가정의 환경에 대한 개입이다. 모자가정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기관들에 의해 제공되는 개별상담과 집단개입이 있다. 이들에 대한 환경적 개입은 정부 및 민간자원을 이용한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지역사회의 원조관계망을 형성하여 도움을 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상담의 경우 모자가정 여성의 심리적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자괴심과 우울증을 제거하고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해 행해진다. 특히 사회사업가의 정서적 지지와 그들의 자신감 획득은 개입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집단개입은 모자가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을 형성하여 정서적 지지와 환경적 자원을 동원하는데 주안을 둔다. 최근 젊은 모자가정의 여성을 상대로한 개발지향적인 집단활동⁹⁾과 여권주의적 집단지도¹⁰⁾가 그들의 고립적이고 패쇄적인 성격 및 행동을 교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모자가정의 규모와 문제양상을 살펴보면, 1979년 서울시의 연구에서는 거택보호대상가구의 51.7%와 법정영세민 가구의 29.3%가 모자가족이었으며¹¹⁾ 1982년의 연구에서 여성세대주 가구가 전체 빈곤계층의 33.6%를 차지했다.¹²⁾

6) Garfinkel, I., & McLanahan, S.S. Single Mother and Their Children: A New American Dilemma.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1986.

7) Proctor, E. K., Davis, L. E., & Vosler, N. R. "Families: Direct Practice",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 Washington, DC: NASW, 1995, pp.941-950.

8) Strand, V. C. "Single Parent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 Washington, DC: NASW, 1995, pp.2157-2164.

9) Schames, G.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Etiology and Treatment of Psychological Dysfunction among Single Teenage Mother: Part II", Smith College Studies in Social Work, Vol. 60, No. 3, 1990, pp.244-262.

10) Wijnberg, M.H. & Holmes, T. "Adaptation to Divorce: The Impact of Role Orientation on Family Life Cycle Perspective", Families in Society, Vol. 73. No. 3. 1992. pp.159-167.

11) 송성자 · 성규탁, "빈곤가족과 사회사업 프로그램 방향구상", 사회복지, 한국사회

빈곤 모자가정의 삶의 질 측정과 사회사업적 개입에 관한 연구

1994년 말 현재 모자복지법상의 모자가정은 51,925 세대이며 세대원 수는 152,838 명인데 전체 모자가정 중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가 18,532 세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25,665세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가 270세대로 전체 모자가정의 85.6%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¹³⁾

우리나라에서 모자가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구자의 관심 및 집중연구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송성자는 일찍이 빈곤모자가정이 갖고 있는 가족구조와 기능상의 문제와 사회심리적, 자녀교육, 교육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복지관의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고 있다.¹⁴⁾ 정복란은 일본 모자세대의 실태와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여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⁵⁾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은 모자가족을 부자가족과 비교연구하여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¹⁶⁾ 그리고 유수현은 도시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가구주에 대한 복지증진대책으로 정부는 복지자금 대부분을 위한 보증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사회지원체계를 활성화할 것을 제시하였다.¹⁷⁾ 한편 한국여성개발원은 1988년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대한 연구에서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자립기반의 확충방안과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기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¹⁸⁾ 1994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결손가족의 실태조사에서 모자가정의 생활실태에 관한 기존자료가 상세히 밝혀졌다. 공세권과 조애저는 이들에 대한 연구에서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모자가정의 형태 및 지역적 분포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편부가족을 포함한 모자가정의 복지대책으로 부모복지법 또는 가족복지법의 제정과 복지서비스의 체계화를 강조하고 있다.¹⁹⁾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자가족과 여성가구주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며 그 밖에 심리적, 사회적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며 이 모든 문제들이 상호결합하여 모자가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보여진다. 또한 모자가정의 경제적 문제와 가구주의 심리적 문제는 자

복지협의회, 1986, pp.12-13 에서 재인용.

12) 한국여성개발원,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1988, p. 1.

13)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1995년, 보건사회부, 1995, p.345.

14) 송성자, "빈곤모자를 위한 프로그램 모델 개발연구", 사회복지, 74, 1982, pp.83-114.

15) 정복란, 모자세대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심의 위원회, 1983.

16) 한국여성개발원, 편부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술연구, 1984.

17) 유수현, "도시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가족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1987.

18) 한국여성개발원, 전게서, 1988.

19) 공세권·조애저,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녀문제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점의 분석은 유수현의 연구와 여성개발원의 연구가 일치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 여성에게 있어서 경제적 빈곤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들의 고민거리 중 가장 큰 것은 돈이 아니라 자녀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결국 모자가정은 소득향상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고 그 밖에 건강문제, 심리사회적 문제, 자녀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지역의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계량적 분석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생활상에 관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모자가정의 심층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방법론은 질적 조사방법에 의해서 심도 있게 이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대체로 기존의 통계자료에 의존하거나 또는 질문지를 통해서 몇가지 요인들을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모자가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본다.

2. 삶의 질의 본질과 측정

삶의 질을 규정하려는 노력은 수없이 많다. 어떤 학자들은 삶의 질을 복리, 심리적 안녕, 주관적인 안녕상태, 행복, 생활만족, 행복한 삶 등의 개념과 동의어로 파악한다.²⁰⁾ 또 다른 학자들은 삶의 질을 심리적 압박(distress)와 심리적 복리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²¹⁾ 따라서 삶의 질의 개념에 관한 한 학자들간에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의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때문이다. 첫째, 삶의 질을 가늠하는 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과정은 학자들 나름대로 제각기 다른 개념적 틀과 용어를 통해서 서술 또는 해석되기 때문에 어떠한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둘째, 삶의 질 개념에는 상당한 정도의 가치 함유적(Value-laden)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각기 다른 가치의 선호로 인해서 만족할 만한 일치를 보기는 어렵다. 셋째, 삶의 질 개념은 인

20) Rice, R. W. "Organizational Work and the Overall Quality of Life", Applied Social Psychology Annual, Vol. 5, 1984, pp.155-178. Cheng, S. T.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Planning and Evaluation of Program", Evaluation and Program Planing, Vol. 11, 1988, pp.123-134. George, L. K. "Economic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A Review of Literature and a Agenda for Future Research", In N. E. Cutler, D. W. Gregg, and M. P. Lawton eds., Aging, Money, and Life Satisfaction, New York, NY: Springer, 1992.

21) Bech, P.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 Vol. 54, 1990, pp.77-89. Chilmall, J. T. & Tait, R. C. "The Quality of Life Scale : A Preliminary Study with Chronic Pain Patients," Psychology and Health, Vol. 4, 1990, pp.283-292.

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관한 이해와 관련되고 그 개인이 위치한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되므로 결국 다양한 개인적 또는 사회환경적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집약되고 있다.²²⁾ 하나는 삶의 질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처한 삶의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고 이와 같은 조건을 나타내주는 사회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삶의 질을 삶의 만족도로 규정하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주관적으로 측정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은 교육, 보건, 복지, 주택, 소득 등 각종 사회지표를 몇가지 영역 또는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시점에 걸쳐 제각기 다른 사회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객관적인 삶의 수준과 변화상을 포착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접근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를 표준화 할 수 있고 국가간 또는 지역사회간의 시계열적인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변인과 심리적 측면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그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며 이를 비교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사회계층이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특성 계층이나 집단의 구성원인 개개인에 의해 판단되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 들인다면 삶의 질을 규정하는데에는 주관적인 요인과 개인적 심리적 측면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객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사회지표 개발에도 관심을 보이지만, 특정 인구집단에 관한 구체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로 주관적인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빈곤모자가정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를 발견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주관적 관점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접근방법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III. 연구 설계 및 방법

1. 조사의 목적 및 대상자와 표본추출

본 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구임대아파트지역 모자가정의 삶의 질을 분석하

22) Schuessler, K. F. & Fisher, G. A.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1, 1985, pp.129-149. Romney, D. M., Brown, R. I. & Fry, P. 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 Perspective for Chan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33, 1994, pp.237-272.

고 그들이 갖는 사회복지욕구의 유형과 정도를 가늠하는데 있다. 본 조사는 기존의 연역적이고 계량적인 조사방법론을 탈피하여 질적 조사방법론을 택하고 있다. 질적 조사방법론에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지만 최근 사회학과 사회사업학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적 조사방법론을 선택하였다.

우선 본 조사에서는 질적 조사방법론에서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처럼 적은 규모의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조사대상자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표집이론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표성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즉 본 조사에서는 적은 규모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단계 집락표집법(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제 1단계로 부산지역 영구임대주택의 총수인 18개 지역 가운데 6개지역을 단순무작위 표본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한 영구임대주택지역은 모라 1, 동삼 2, 금곡 4 지역이 표집되었으며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한 영구임대주택지역으로는 부곡 1, 개금 2, 반송동 등이 표집되었다. 제 2단계로 이들 각 6개 지역에 입주해 있는 모자가정 세대를 역시 단순무작위로 3가구씩 표본으로 추출하여 총 18가구를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집락표집법은 확률표집법의 일종으로 표집의 대표성이 인정되고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조사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표집방법의 일종이다.²³⁾

본 조사에서 면접의 대상이 되는 표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적합한 면접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일 것

둘째, 전화나 방문으로 면접을 수락하는 모자가정일 것

셋째, 사회복지전문요원 또는 인근 사회복지관의 직원과 접촉을 갖는 모자가정일 것

위의 세가지 면접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세번째 요건은 특히 연구대상자들에 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전문요원 또는 복지관의 직원으로 부터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포함되었다.

2. 조사도구 및 자료수집 방법

예비면접조사에서 임의로 선정된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1차적인 접촉이 시작되었다. 이때 그들의 삶의 길을 구성하는 중요한 생활상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뒤, 1차 면접시 반구조화된 면접지와 개방형 면접지를 마련하여 면접을 실시했다. 1차 면접의 결과 연구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삭제하

23) 남세진·최성재,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대출판부, 1994, pp.198-199.

고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사항을 첨가하여 2차 면접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2차면접시에 면접자의 질문과 그에 따른 응답을 테이프에 녹음하여 근거이론적 조사방법론에 따라 코딩(coding) 하였으며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요원과 복지관의 직원들을 주요 정보제공자(key informants)로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의 첫단계는 개방적 코딩(open coding)의 단계로 다양한 응답을 유사한 형태로 모으는 작업을 실시한 후, 점차 응답의 특성에서 유사한 것들이 몇가지 형태로 수렴되게 하는 중간 코딩(axial coding) 작업을 거친뒤, 마지막 단계인 이론적 코딩(theoretical coding)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개념을 범주화 하였다.

면접은 주로 모자가정의 세대주가 취업이나 부업을 갖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녁시간대에 이루어 졌으며 면접의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조사는 연구자 2명과 충분히 훈련된 5명의 면접자가 모자가정을 방문하여 1996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 까지 진행되었다. 이러한 면접조사의 전 과정은 근거이론적 질적조사방법론의 제반 규정에 따라 실행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거이론적 조사방법론의 의의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연구목적의 달성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아래에서 아직 우리 나라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생소한 근거이론적 조사방법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았다.

3. 근거이론적 조사방법론

근거이론적 조사방법과 기존의 주류 사회과학적 조사방법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근거이론은 사회학에서 개발된 이론이지만 사회과학에서 민속학을 제외하고 가장 잘 알려진 질적 조사방법론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분야와 전문직의 실천에 적용되고 있다. 원래 근거이론적 조사방법론은 Glaser와 Strauss의 근거이론의 발견²⁴⁾이란 저서에서 유래 되었다. 이 이론은 논리적 환원주의와 이론에서 가설을 도출하여 검증하는 지배적인 연구방법론에 대항하여 구체적인 자료로부터 개념을 도출하는 귀납적인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론은 학자나 연구자가 안락의자에서 자신의 관념에서 이론을 만드는 것을 배격하고 생생하고 살아있는 현장의 자료로부터 이론을 정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연구자는 자료에 적합하고 문제의 행동이나 상황에 의미 있는 개념적인 범주를 구축하게 된다. Charmaz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근거이론을 요약하고 있다.²⁵⁾

첫째,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행하여진다. 이론은 조사연구자의 분석적 해석

24) Glaser, B. & Strauss, A.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IL: Aldine, 1967.

25) Charmaz, K. "The Grounded Theory Method: An Explication and Interpretation", In R. Emerson ed., Contemporary Field Research, Boston, MA: Little Brown, 1983. pp.109-126.

과 발견에 기초하여 수집된 자료로부터 직접적으로 구축된다.

둘째, 조사의 과정과 결과는 미리 형성된 이론 또는 그 이론으로부터 환원된 이론적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근거하여 출현되고 결정되어진다.

셋째, 유의미성, 비교가능성, 일반화, 엄격성, 재활용 가능성 등 조사연구의 기본적인 규준은 존중되나 질적조사연구 방법의 틀에 의해서 재조정된다.

넷째, 사회적 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갖는 이론은 주어진 자료의 단순한 설명보다는 분석적인 해석과 발견에 의해 가능해 진다.

일반적으로 근거이론적 조사방법은 다른 여타의 질적조사연구의 방법과 절차와 유사하다. 즉 질적조사는 ① 연구주제에 대한 관념, 자료의 탐색, 탐색적 질문 구성 등이 선행되고 ② 연구설계에 들어가서 ③ 관찰과 면접을 실시하고 ④ 기록을 작성하면서 동시에 자료를 분석한다 ⑤ 그러한 과정에서 coding 작업이 이루어지고 주요한 개념적 범주가 구축된다.²⁶⁾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 모자가정의 인구사회적 특성

부산지역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빈곤모자가정에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족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나이를 살펴볼 때, 총 18명의 응답자 중 30대가 5명(27.7%) 40대가 10명(53.5%) 50대가 3명(16.6%)으로 그들의 평균나이는 42.2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구성은 1987년과 1994년도 전국적으로 실시된 모자가정 및 결손가족의 생활실태 조사에서 편모가구주의 평균연령인 44.4세와 45.8세²⁷⁾와 유사하여 우리나라 모자가정 가구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구성은 4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학력을 보면 고졸이 4명(22.2%) 중졸 6명(33.3%) 국졸 6명(33.3%) 무학 2명(11.1%)으로 대부분의 모자가정 가구주는 중졸이하(77.7%)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자가정의 자녀의 수는 평균 1.6명으로 대체로 두 자녀를 둔 가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모자가정이 된 이유 또는 남편과 헤어진 사유로는 남편의 유기 (5.5%)와 이혼 (22.2%)이 지적되고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는 사별(72.2%)로 나타

26) 보다 자세한 절차에 관해서는 Strauss, A.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을 참고.

27) 공세권·조애저, 전계서, 1995, p.12. 한국여성개발원, 전계서, 1988, p.15.

빈곤 모자가정의 삶의 질 측정과 사회사업적 개입에 관한 연구

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도 전국적 조사²⁸⁾에서 밝혀진 수치(76.3%)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편모가 되어 현재까지 모자가정으로 살게된 기간은 평균 11.6년으로 최단기간 3년이었고 최장기간은 15년이 된 가정도 있었다.

<표> 조사대상 모자가정의 인구사회적 특성

특 성	구 분	응 답 자 (%)
연 령	20세 - 29세	0 (0)
	30세 - 39세	5 (27.7)
	40세 - 49세	10 (55.5)
	50세 - 59세	3 (16.6)
학 력	무 학	2 (11.1)
	국 졸	6 (33.3)
	중 졸	6 (33.3)
	고 졸	4 (22.2)
편모가 된 사유	이 혼	4 (22.2)
	사 별	13 (72.2)
	유 기	1 (5.5)
	기 타	0 (0)
편모가 된 기간	0 - 5년	4 (22.2)
	6 - 10년	9 (50.0)
	11 - 15년	5 (27.8)
	20년 이상	0 (0)
직업유무	유	12 (66.7)
	무	6 (33.3)
생보대상 책정여부	거택보호	6 (33.3)
	자활보호	10 (55.6)
	무	2 (0)
월 평균소득	0 - 20만원	2 (11.1)
	21 - 30만원	5 (27.8)
	31 - 40만원	4 (22.2)
	41 - 50만원	3 (16.7)
	51만원 이상	4 (23.2)

조사대상가구의 경제적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중에서 모자가정의 가구주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12명(66.7%)이고 직업이 없는 경우는 6명(33.3%)으로 나타났다. 취업인 경우에도 대부분은 일용 생산직과 식당일 등 비정규적이고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보험설계사 또는 미용사 등 비교적

28) 공세권·조애저, 전게서, 1995, p.15.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났다. 조사대상가구는 현재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가구(88.9%)로 책정되어 있으며 그중 자활보호대상자 가구의 비율은 55.5%이며 거택보호대상가구는 33.4%로 나타났다. 현재 그들의 평균수입은 정부의 생계보조와 교육보조를 포함하여 평균 38만6천원이며 전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자활보호 모자가정의 수입은 거택보호가정보다 높은편으로 나타났다.

2. 모자가정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본 조사의 결과 모자가정의 가구주로 현재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 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주위로 부터 시달림, 어려움, 속상함, 불편, 힘들, 슬픔 등으로 표현된 “고생의 연속”이며 또 다른 하나는 모자가정으로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고 생활여건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족의 인정”이다. “고생의 연속”유형에 속하는 어느 모자가정의 가구주의 현실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술되고 있다.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지금의 우리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이다. 다치는 대로 일을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주위나 이웃에서 차별하는것 같으며 아들이 학교에서도 아버지가 없다고 놀림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속상하고 눈물이 난다.”

한편 “자족의 인정” 유형에 속하는 전형적인 모자가정의 가구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남편을 젊은 나이에 사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쪼달리는 형편이지만 정부에서 도움도 주고 작지만 이런 아파트에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 전자의 유형에 속하는 모자가정의 가구주들은 대개 자신과 자녀 중에 건강문제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또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있어도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수입이 불안정하여 관리비 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연체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전

빈곤 모자가정의 삶의 질 측정과 사회복지적 개입에 관한 연구

자의 유형에 속하는 모자가정을 경제적 욕구와 의료적 욕구가 가장 시급히 충족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복지 욕구로 등장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미충족 욕구의 존재가 현재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후자의 유형에 속하는 모자가정의 가구주들은 정신질환을 비롯한 신체 및 건강문제를 갖는 사람도 소수 있었지만 대다수가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자녀들이 착해서 자신을 이해해 주며 학교생활에도 별 문제없이 잘 적응하고 몇몇 아이들은 학업성적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모자가정 가구주들이 자신의 생활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직업 및 수입과 관련된 경제문제, 건강문제, 그리고 자녀교육문제로 들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두가지 형태로 현실을 달리 평가한 모자가정의 가구주들은 한가지 측면에서 일관성을 보이는데 조사대상 모자가정 가구주 모두가 현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녀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의 유형에는 이러한 기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현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의 구실을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견고한 신앙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3.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나 욕구 및 사회적 관계망

빈곤 모자가정의 사회복지적 차원의 문제나 욕구는 경제, 건강, 자녀교육, 소의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문제로 등장한다. 그들의 평균소득이 38만 6천원으로 가구원 수에 비하면 자활보호 책정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소득적 욕구를 갖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부가적인 소득이나 지원이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에 관한 질문에서 그들은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주저하고 곤란해 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의 공통적인 바램은 자녀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도 학비 및 수업료 보조가 있기를 원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경우도 정부보조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건강상의 문제는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그것은 직업의 유지에도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직업을 갖길 원하나 건강상의 문제로 정규직을 구하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수입의 일부를 충당하는 모자가정의 가구주가 다수 존재하였다. 여하튼 직업은 경제적 욕구 충족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되기도 하지만 현실적 삶의 만족도와 향후삶의 계획에서도 결

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어느 모자가정 가구주의 진술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준다.

“작년까지는 공장에서 일을 했으나 피로와 두통이 자주 발생하여 공장 일을 그만 두었다. 그래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나 치료를 위해 내몸에 돈을 쓰지는 못한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증상이 없어지면 다시 공장 일을 계속하여 자식을 잘 뒷바라지 해주고 싶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주택적 욕구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에서 대다수 모자가정은 과거의 셋방살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부터 탈피, 그리고 주인집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등으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으나 주위의 비행청소년 문제와 빈곤가정 밀집지역이라는 주거환경에는 불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영구임대 주택 정책은 일면 저소득 계층의 주택문제는 해결하였으나 빈민의 집단화에 따른 또다른 사회환경적인 문제를 잉태하였다고 평가된다.

모자가정은 여하한 이유로 남편이 부재하고 여성이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불완전한 형태의 가족에 속한다. 전통적인 가족윤리에 의하면 여자는 시집을 가면 출가의인으로 친정과 멀어지게 마련이다. 더구나 남편과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하여 시댁과도 예전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자가정의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문제는 중요시 된다고 본다. 모자가정의 인간관계망에서는 남편과 헤어지게 된 사유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시댁과의 교류의 정도에서 이혼의 경우 시댁과 교류는 거의 단절되었으며, 사별인 경우 교류가 어느 정도 있거나 빈번한 경우와 거의 없는 경우로 나누어 진다. 사별인 경우 어느 정도 교류가 있는 모자가정은 자녀를 위해서 시댁의 행사나 제사가 있을 때 교류하는 정도가 고작이고 빈번히 교류하는 모자가정은 특히 남편의 형제가 정서적 물질적인 부정기적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별인 경우도 교류가 없는 모자가정은 시댁의 경제사정이 너무도 궁핍해서 도리어 자신들이 도와야 할 처지 때문에 교류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스스로 모자가정의 여성이 시댁과의 교류를 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대부분의 조사대상 모자가정의 가구주는 친정과 교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통적인 가족관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이웃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망의 정도를 알아보려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느정도 교류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빈번히 교류하는 모자가정은 그 대상이 주로 친구, 교우, 목사, 이웃의 비

빈곤 모자가정의 삶의 질 측정과 사회사업적 개입에 관한 연구

스한 처지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주로 “자족의 인정”의 유형에 속하는 여성들이었다. 반면에 교류의 정도가 거의 없거나 적은 모자가정은 “고생의 연속”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류의 대상도 한 두명의 친구나 통장 정도에 한정되어 있었다. 특히 굳은 신앙심을 삶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간주하는 여성가구주들이 목사나 교우와의 잦은 교류를 통해서 많은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하튼 이러한 조사결과는 모자가정의 삶의 질을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정도와 형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대다수의 모자가정이 생활보호대상자이므로 동사무소의 전문요원이나 인근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의 접촉은 가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모자가정 여성들은 인근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첫째, 직장과 공장일 때문에 이용할 시간이 없고 둘째, 사회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어느 모자가정 가구주의 진술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에 사회복지관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 눈만 뜨면 일어나고 저녁 늦게 돌아오면 그곳은 문이 잠겨 있다. 아이들과 이웃집 아줌마들은 그곳에 곧 잘 가보는 모양인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가볼 시간도 없다.”

4.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감

사회복지에서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빈곤 모자가정의 삶의 양태는 개개 모자가정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빈곤 모자가정의 삶의 질에 관한 질적 조사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한가지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감의 여부가 그들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에서 드러난 두가지 패턴에서 “자족의 인정”에 속하는 모자가정 가구주는 결국 직업과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정도에서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향성을 갖추고 있었고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와는 정반대로 “고생의 연속” 유형에 속하는 모자가정 가구주는 자신에 대해서는 상실감을 갖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따라서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감 여부는 그들의 삶의 질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통제감의 확보와 사실은 물론 주변의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으나 통제감의 확보는 순환적으로 다시 그들의 열악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V. 복지대책 및 사회사업실천에의 함의

본 연구조사 결과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빈곤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대책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현재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부조의 급여수준은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거택보호자는 생계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의 각종 보호조치가 취해지지만 우선 생계보호의 수준이 최저 생계비 수준을 밑돌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그리고 교육보호의 경우 올해부터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비보조가 이루어지나 실제로 공교육비보다 사교육비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부가적인 교육보조가 없이는 빈곤의 세습화의 가능성이 크고 특히 모자가정의 생활형편이 크게 향상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빈곤문제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없다는 점이 이혼 및 사별을 한지 10여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생활보호대상자로 머물어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조사대상자 중 대부분이 직업을 갖고 있으나 임시적 또는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생활이 불안정하다. 따라서 정부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대책은 직업훈련, 직업알선,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모자가정의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이들 여성의 나이, 학력, 그리고 경험, 시간적 제약성, 자본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서 이들에게 가장 활용가능한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이들이 취업해 있는 분야를 보면 영세 공장이나 식당, 미장원 등에서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낮은 학력수준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의 취업을 보다 안정적인 취업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권장되어 진다. 예를 들면, 일용직으로 그냥 식당 일을 하는 것 보다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정식으로 취업을 한다거나 또는 독립해서 소규모 자영업할 수 있다면 경제적 자립은 훨씬 더 빠른 시간안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은 희망직종과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골라서 그리고 직업훈련 후에

빈곤 모자가정의 삶의 질 측정과 사회사업적 개입에 관한 연구

는 취업정보제공과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자립지원센터는 이러한 방법으로 영세 모자가정의 자립에 접근할 수 있다.

정부의 자원이외에 민간 또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목표로 등장한다. 빈곤모자가정의 여성들은 비교적 인근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구임대주택의 사회복지관은 홍보를 강화하고, 모자가정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근무시간을 저녁 늦게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관에서 모자가정의 여성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이 자조집단을 형성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서로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정보의 제공 및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모자가정의 여성을 위한 복지관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활동을 촉진시켜주는 측면에서 이들 여성의 자녀들에 대한 개입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어머니가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방과후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여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모자가정 여성들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아동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박물관 견학, 여행, 캠프 등의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사업실천과 관련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영구임대주택의 모자가정 여성들이 많은 경우 사회적 고립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소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원조관계망을 형성하여 사회지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모자가정과 같은 특수한 표적집단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서는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비공식적인 원조관계망(national helping network)이란 비전문적 또는 자발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나 도움을 주는 사람과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간의 신뢰할 만한 연계를 맺어주는 것을 말한다.²⁹⁾ 따라서 비공식적 원조관계망은 친구, 가족, 이웃 또는 교우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원조제공자가 수시로 또는 간헐적으로 이들과 접촉해서 심리 또는 정서적 지지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 원조도 가능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오늘날 지역사회 가용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사회복지의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자

29) Barker, R. L. The Social Work Dictionary, 3rd ed., Washington, DC: NASW, Press, 1995, p.250.

가정 여성과 그 자녀를 위한 비공식적 원조관계망의 형성을 통한 사회지지체계의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체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적절하며 그들은 이러한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조사의 결과 많은 모자가정의 여성이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거나 이혼에 따른 후회와 그 여운에 대한 적절한 감정 또는 정서적인 정리가 되지 않는 조사대상자들은 임상적인 상담과 치료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행할 때 그들이 생활 환경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의 통제감을 형성하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는 권능부여(empowerment)을 기초로 한 상담기법이나 여권주의적(feministic)상담기법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임상사회사업의 실천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은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심리적 평가는 환경적 여건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긍정적인 현실 인식은 결국 불리한 환경적인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자족의 인정” 유형에 속하는 모자가정의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자식에 대한 기대로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고생의 연속” 유형에 속하는 모자가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사물을 보는 시각과 인지구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주변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VI. 빈곤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사업적 개입

지금까지 논의에서 빈곤모자가정에 대한 조사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빈곤 모자가정의 여성에 대한 사회사업적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빈곤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회사업 개입전략을 사회지지체계의 확보, 권능부여, 그리고 여권주의적 상담 등 세가지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

사회적 지지체계(social support network)란 상호 연결된 관계를 유지하는 한 집단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해 주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한 강화를 제공해 주는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³⁰⁾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 친구, 이웃사람 등에 의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30) Whittaker, J. K. & Garbarino, J. Social Support Networks: Informal Helping in the Human Services, New York, NY: Aldine, 1983, p.5.

허다하기 때문에 이를 비공식적 원조관계망(natural helping network)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하튼 사회적 지지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독특성을 인정해 주고 격려와 긍정적인 반응으로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고 유용한 정보, 기술, 그리고 자원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가 소원한 사람에게는 소외의 사이클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³¹⁾ 사회사업실천에서 사회지지체계의 개발과 적용에 관해서는 주로 가족치료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영역에 종사한 사회사업가들에 의해서 시도 되었는데 대상은 주로 심리사회적 치료를 요하는 클라이언트와 소외된 개인, 이혼한 미망인 등 다양한 개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이루어졌다.³²⁾ 사회사업적 개입의 목표는 원조활동의 질적 향상과 원조체계의 다변화를 통한 심리사회적 문제해결에 두고 클라이언트의 인지와 행동변화에 유용한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빈곤 모자가정의 여성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소원한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비공식적인 원조관계망의 확충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공고히하는 사회사업적인 개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본다.

권능부여(empowerment)는 빈곤계층, 소수민족,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소외되고 힘이 없는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하고 활용하여 보다 넓은 사회적 적응과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사회사업적 철학이자 접근방법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권능부여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하는 사회사업가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환경적인 여건을 엄밀히 평가한 뒤 자신의 결정으로 대안을 선택하고 마침내 생활환경의 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권능부여에 의한 접근방법은 전통적인 사회사업적 개입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약점에 주안하는데 반하여 그들의 잠재력 또는 강점에 더욱 큰 비중을 두어 그것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사업의 근본적인 가치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특정 소외계층의 클라이언트에 보다 효과적인 실천방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다.³³⁾ Gutierrez 는 권능부여에 관한 기존의 문헌을 검토한 뒤 사회사업적 개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³⁴⁾ 첫째, 클라이언트가 정의하는 문제를 수용하는 방법, 둘째, 클라

31) Maguire, L. 지음, 장인협·오세란 옮김, 사회지지체계론: 기초이론과 실천사례, 사회복지실천연구소, 1996, pp.16-21.

32) McIntyre, E. "Social Networks: Potential for Practice", Social Work, Vol. 31, No. 6, 1986, pp.421-426.

33) Solomon, B. B, "Community Social Work Practice in Oppressed Minority Communities," In S. H. Taylor & R. W. Roberts, eds.,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ty Social Work,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pp. 217-257. Staples, V. "Powerful Ideas about Empowerment,"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Vol. 14, 1990, pp.29-42.

34) Gutierrez, L. M. "Working with Woman of Color: An Empowerment

이언트가 현재 보유하는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방법, 셋째, 클라이언트가 당면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권력 또는 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 넷째, 문제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 다섯째, 자원을 동원하고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의 방법 등이다. 빈곤 모자가정의 여성은 성별에 의한 취약성을 보유하면서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특수한 소외계층에 속하는 서비스 대상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사업적 개입은 자신들의 잠재력과 강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 모자가정에 대한 권능부여에 의한 사회사업적 접근방법은 그 당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사회사업 실천이론은 성차별과 여성문제를 적절히 다룰 만한 이론적인 틀을 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주장아래 여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1970년대 부터 주로 가족치료 분야에서 발전된 이론이 여권주의적 개입방법(feministic intervention)이다.³⁵⁾ 따라서 여권주의적 접근방법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제도 및 관행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여성들의 새로운 자아발견을 기초로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모자가정의 여성을 위한 여권주의적 상담은 여성의 성성(sexuality)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성차별적 가정에서 벗어나서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적인 시각에서 보면 여성은 남성에게 속하며 남성이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자식과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집안살림이나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성역할 구분적 시각에서 본다면 남편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불행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권주의적 상담은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인정하고 남성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독립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³⁶⁾ 모자가정의 여성에게는 심리적 정서적 독립과 함께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자가정의 여성이 스스로의 독립된 정체성을 갖게 되

Perspective”, Social Work, Vol. 35, 1990, pp.149-153.

35) Hartman, “Family Therapy,”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 Washington, DC: NASW Press, 1995, pp.983-991.

36) 최선화, “여성심리와 여권주의 상담법,” 여성연구, 제6집, 부산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5, p.153.

빈곤 모자가정의 삶의 질 측정과 사회사업적 개입에 관한 연구

면 사회적 관계 및 지지망과의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